길 잃은 그대 위한 한 줄기 광명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⑦ 〈숫타니파타〉

〈소부(小部)〉는 〈쿳다까니까야〉로 모두 15경으로 이루어 졌다. 보통 한역대장경으로 번역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담마빠다〉는 〈법구경〉, 〈자따까〉는 〈생경〉, 〈이티붓타카〉은 〈본사경〉으로 〈숫타니파타〉는 〈의족경〉으로 이미 번역되어 있다. 그 중 부처님의 설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르침이며 5장 70경. 1,149의 시(詩)로 이루어진 〈숫타니파타〉는 그 중 최고의 경전이다. 중생의 아픔을 꼭 집어 맺혀있던 번뇌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초월해 가장 많이 읽히는 〈숫타니파타〉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기까지 겪은 구도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자에겐 어두운 밤길에 함께하는 등불과 같은 지혜의 경전이다.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물에 젖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친구나 주위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여 마음이 얽히게 되면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다. 친함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숫타니파타〉는 몰라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는 말은 기억한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수행자들에겐 출가목적을 항상 생각하고, 집착하는 삶과의 이별을 고하는 가르침이다.

그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경은 〈나룻배〉다. 사리불과 목건련은 당대 최고의 젊은 바라문들이었다. 둘은 어려서부터 친했고 앞으로 언제까지나 함께 수행하며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서로에게 연락해서 함께 공부하기로 약속했다. 어느 날, 탁발나간 거리에서 우연히 부처님의 제자 앗싸지(Assaji)를 만났는데 그 모습에서 청정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고 당신 스승의 가르침은 무엇이냐고 묻는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사라진다. 이것이 위대한 사문의 가르침이다."

그 순간 사리불은 앗싸지의 법을 듣고 청정한 눈을 얻었다. 드디어 사리불은 목건련과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사리불이 앗싸지가 곁에 없던 어느 날 문득 좌선하다 전생에 두 사람의 스승과 제자였음을 알아 차렸다.

너무도 감동하여 벌떡 일어나 사방에 절을 하였다. 이 모습을 본 수행자들은 사리불이 예전에 바라문이었으니 여기 저기 절하는 버릇을 놓지 못했다고 수근거렸다. 때마침 부처님이 그 곁을 지나가다 보시고는 사리불은 방위를 숭배해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 대한 예경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 가르침을 설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존경받아야 한다. 배움이 깊은 그런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라. 그러면 그는 너에게 마음을 다하여 길을 가르쳐 보여 줄 것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그 가르침을 열심히 들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긴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게 되면 너 역시 그 사람과 같은 경지에 이를 것이다.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선지식의 말조차 듣지 않는다면 스스로도 모르고 의심의 장벽을 넘어가지도 못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저 일등 항해사가 아주 튼튼한 배를 타고 많은 사람을 강 건너 저 언덕으로 건네주듯이 진리를 통달한 사람은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제자들아. 지혜롭고 배움이 깊은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 사리를 잘 판단하고 착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를 깊이 통찰하여 마침내 저 행복의 문에 이르게 되리라.

〈서울 반야사 주지〉

자신을 낮추면 항상 발전한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⑥ 혼자 공부의 위험성

언제인가 배웠던 주역(周易)의 한 구절, '정기위물(精氣爲物) 유혼위변(遊魂爲變)'. 즉, '에너지(精氣)는 물질이 되고, 떠돌아다니는 혼의 변화의 근본이 된다' 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주역의 계사(설명문)는 공자님의 말씀이라는데 '정기위물(精氣爲物)'.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는 말씀을 2500여 년 전 공자님께서 예측하셨다는 것이 아닌가?

선지식에게 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밝은 학문을 한 동양사람들은 못 살고 어두운 학문을 하는 서양사람들은 더욱 잘 삽니까?" "오만하면 어두워져 내리막길을 가며, 자신을 낮추고 부지런히 배우는 마음이면 향상 발전하여 오르막 길을 가게 된다. 한국이 지금은 매우 가난하나 장래는 매우 밝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동차 한 대도 만들지 못하지만 머지 않아 한국은 공업 대국이 되어 자동차가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갈 것이고, 언제인가 우리나라는 세계중심 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할 당시인 1967년, 우리나라는 자동차 한 대도 생산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가장 빈한한 나라였다. 질문에 대한 선지식의 대답을 통해 우주의 비밀이 하나하나 벗겨지며 신기한 생각이 들기에 언제인가 읽었던 〈육조단경〉의 구절중 궁금한 것을 질문해 보았다.

"〈육조단경〉에 혜능 대사께서는 수도하는 사람에게 선지식이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선지식이 필요한 것만도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본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선지식이 있어서 저절로 깨우쳐지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연 선지식이 없이 혼자 하는 공부도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 수도장을 떠나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선지식을 모시고 하는 수도란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님은 물론 집에 계신 가족들을 조금만 생각해도 불안하였기 때문이었다.

선지식은 정색을 하시며 "혜능 대사는 이미 전생에 큰 깨달음을 얻고 밝아서 온 사람이었다. 전생에 이미 밝음을 체험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알게 된다. 사람들을 태어날 때부터 혜능 대사 같은 사람을 생이지지(生而知之)한 사람이라 한다. 공자님이 생이 지지요 혜능 대사가 생이지지인 것이다. 생이지지한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마음 속에 선지식이 있어 저절로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는 능력이 있기에 반드시 선지식을 만나지 않는다 하여도 깨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네 마음에 과연 선지식이 있느냐?"

여기 까지 말씀을 들으니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계속해서 선지식은 "네 마음에는 혜능 대사처럼 선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탐진치가 그득하지 않느냐?"

처음에는 아침 공부시간이 환희심도 나고 보람도 느껴지기도 하였으나 꾸중을 하시거나 자신의 하찮은 모습이 여러 도반들에게 드러날 땐 적지 않게 괴로웠다. 자신의 업장의 표출, 선지식과 함께 하는 검토, 지적 및 꾸중, 퇴타심의 예방에 관련된 법문 말씀 등 아침 법회는 자신의 업보 업장이 태산과 같음을 느끼게 하였으며 그동안 얼마나 무지와 착각 속에서 살아 왔음을 실감나게 하였다. 수지자신죄장 유여산악(須知自身罪障猶如山嶽)! '마땅히 자신의 죄업이 산악과 같이 큰 줄로 알 것이다' 라는 초발심 자경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우리들의 업장이 얼마나 큰 것을 일깨워주시는 선지식의 말씀은 나와 같은 수도인들에게 또 다른 격려였다. 때가 되어서 스승을 떠나 혼자 만행을 하며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렇게 배고픔, 졸림 역시 공(空)하여 본래 없음을 알게 되며 사람과 사람사이의 업보 역시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게 되면서 나의 마음은 한없이 편안해지기 시작하였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별을 잠시도 쉬지 못했던 나의 마음에 차츰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부처님 전에 복을 짓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며 선지식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이 뭣고' 는 마음 관(觀)하는 一法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대사가 150세 나이로 중국으로 건너와서 불교에 대혁명을 일으켰는데, 경(經) 염불(念佛), 송주(誦呪)등을 다 부인(否認)하고 관심일법(觀心一法) 총섭제행(總攝諸行)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을 했다. 즉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공부에 모든 법이 다 들어있으니, 곧 바로 진심을 관해 자기 성품을 보고 깨달아 생사가 없는 부처가 되게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진심을 관하는 일법이 일체 수행법의 근본이며, 그 관하는 반야지혜(般若智慧)가 바로 '이 뭣고' 인 것이다.

육진경계(六塵境界)를 딱 하나로 관하는 자리가 반야(般若)인데, 저 높고 깊은 곳에서 내 모습을 '이~뭣고' 로 관조(觀照)하면, 아무리 높은 태산 같은 무게의 괴로움과 슬픔도 한 조각 하염없이 흘러가는 뜬 구름일 뿐이요, 금방 질식(窒息), 폭발(爆發)할 것 같은 나의 감정의 모습도 지나가는 아지랑이에 불과 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 생활속에서 매순간 일어나는 한 생각을 바로 알아차리고(싸띠) 그 뿌리를 '이~뭣고' 로 찰라에 잘라 버림으로서 제 8아뢰야식에 저장된 업장이 점차 소멸돼 생사고(生死苦)에서 벗어나고, 내안의 자성불인 지혜광명의 스위치를 '이~뭣고' 로 올려 밝히면 그것이 매순간 여의보주를 굴려 쓰게 되는 이치와 같다. 우리의 모든 소원성취도 내안 자성불(自性佛)의 진성연기(眞性緣起)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지 밖에서 빌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화엄경〉에 약인욕식불경계(若人欲識佛境界) 당정기의여허공(當淨基意如虛空) 원리망상급제취(遠離妄想及諸趣) 염심소향개무애(念心所向皆無碍)이란 말이 있다. 이는 "만일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허공같이 하라. 모든 망상과 취하려는 욕심을 여의면 이 마음 가는 곳에 걸림이 없으리라"는 의미이다.

"부처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허공같이 모든 망상과 취하려는 욕심을 여의면 걸림이 없다"

돈오(頓悟)의 돈제망념(頓諸妄念)은 모든 망념을 제거하는 것이고, 오무소득(悟無所得)은 깨달음이란 본래 갖춰 있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즉 망념만 제거하면 그대로가 부처인 것이다.

화두란 지금 우리에게 직접 부딛히는 모든 장애와 관계된 마음의 성질이다. 생활속에서 불법과 화두를 따로 분리시켜 놓으면 생각마다 어려움에 갇혀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 본래 어둡고, 밝고, 알고, 모를 것이 없다. 누구나 본래부터 그대로 부처인 것이고, 모든 생명은 본디부터 깨달음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본각(本覺)은 깨닫는 자와 깨닫는 대상은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닌 것을 둘로 나눠놓고 깨달으려 하니 남(南)과 북(北)이 서로 갈라진 것이다. 또한 깨달아 증득하려는 마음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애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고, 깨달음을 구(求)하는 것은 자기 집 안방에 앉아서 자기 집을 찾는 격이다. 우리가 삶속에서도 나와 너를 둘로 보기 때문에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일어 나지만, 깨닫고 보면 남이란 타인(他人)이 아니고 또 다른 나인 것이다. 중생이 아무리 본래부터 뚜렷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천성으로 지혜의 눈이 어두워 생사윤회를 거듭 하는 것이다.

만약 세상서 뛰어난 금강보검(金剛寶劍) '이~뭣고' 가 아니라면, 누가 무명(無明)의 두꺼운 껍질을 벗겨 줄 수 있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 우리가 수행중 혼침이 일어 나더라도, 이(是)를 심안(心眼)으로 반조(返照)하며, 천천히 의심(疑心)을 일으켜 '이~뭣고' 하면 차차 화두가 순일 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쇳덩이를 달궈 황금을 만들 듯이 오직 모르고 모를 뿐인 그 당처를 '이~뭣고' 를 통해 근본 마음자리로 되돌려보는 것이 바로 회광반조(廻光返照)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3월 13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현재 법당의 엠프설비를 "UBS 내장형" 최신형,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 셋트로
160만원에 교체 설치, 보시 해 드립니다!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2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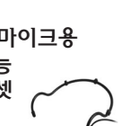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 (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 CD기기 (5개 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